

군산공설시장, 전자가격표시기 도입

전국최초 마트형 시장... 상인회 사무실서 각 점포에 비치된 제품 가격·원산지 원격 조정

군산공설시장이 전통시장 최초로 가격과 원산지가 표시되는 전자가격표시기(ESL)를 설치·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군산공설시장 상인회, (주)에이텍에이피는 지난 4일 김광재 전북지방벤처기업청장이 공설시장을 방문해 전자가격표시기 현장 시연을 갖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8월 29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전자가격표시기(ESL) 도입을 위한 상생 지원식을

가진 이후 지난 9월에 걸쳐 전자가격표시기 650여 개를 군산공설시장에 설치했다.

전통시장은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과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일부 가격 표시가 되어 있는 전통시장에서도 일일이 수기로 표시해야 하는 불편이 매일 바뀌는 시세와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번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최초로 군산공설시장에 전자가격표시기(ESL)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지원은 LG CNS 자동화 사업부에서 분할 설립된 중소기업인 (주)에이텍에이피에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1억원 상당의 프로그램 및 기기를 지원해 이뤄졌다.

군산공설시장에 설치되는 전자가격표시기(ESL) 시스템은 가격과 원산지가 자동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상인회 사무실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각 점포에 비치된 제품의 가격과 원산지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안장호 경제협력혁신국장은 "군산공설시장은 군산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특색있는 상품이 많은 전국최초의 마

트형 시장이다"며 "이번 전자가격표시기 도입을 통해 전통시장도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생지원금은 판매대 정비가 되어 있는 20개 점포, 650개 상품에 대해 시범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군산시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상인 스스로 가격과 원산지 표시에 대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장대학교 패션산업과는 '패션1930s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전라북도지사 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군장대 패션산업과, 디자인경진대회 대상

본선 진출 최종 9개 팀 공연

군장대학교(총장 이승우) 패션산업과(학과장 이지연 교수)는 '패션1930s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전라북도지사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지연 교수는 올해 첫 회를 맞아 개최된 군산시간여행축제 패션 1930s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학과 간의 협동으로 의미 있는 대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며 "패션 1, 2차에 걸쳐 심사를 통과 한 본선 진출 최종 9개 팀이 공연이 가미된 패션쇼 무대를 꾸미면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군장대학교 패션산업과 학생들은 '아스트리아스' 팀(팀장 민지

영 외 4명)를 구성해 의상을 제작하고 뮤지컬방송연기계열 학생들은 연기를 펼치면서 군사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지연 교수는 올해 첫 회를 맞아 개최된 군산시간여행축제 패션 1930s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학과 간의 협동으로 의미 있는 대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며 "패션 1, 2차에 걸쳐 심사를 통과 한 본선 진출 최종 9개 팀이 공연이 가미된 패션쇼 무대를 꾸미면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군장대학교 패션산업과 학생들은 '아스트리아스' 팀(팀장 민지

/군산=김정훈 기자

정헌을 시장, 서동축제 백제와 마한 분리 지시

"백제에 치중... 마한의 역사 되살려야" 주장

태풍 피해복구·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처 주문

정헌을 익산시장이 7일 열린 간부 회의에서 그간 '백제'에만 치중해 우리의 소중한 역사인 '마한'을 잃어 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서동축제에서 백제와 마한을 분리해 마한의 역사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헌을 시장은 "익산시의 대표축제인 서동축제는 1969년 시작한 마한민속제전에서 유래했는데, 오늘날 서동

축제는 서동과 선화를 중심으로 한 백제중심의 축제로 기울어져 있다."고 설명하며, "내년부터는 서동축제에서 마한의 역사를 별도로 분리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익산은 삼한시대 마한 54국의 중심지로서 기원전 194년, 기준왕이 익산땅 금마를 도읍으로 정해 마한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기준성'이라고 불리는 비록

상성'이 그 대표적인 유적이다."면서, "기준산성(미륵산성)에 대한 관광지 개발 및 홍보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정헌을 시장은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태풍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국화축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지구는 난화로 인해 10월 태풍이 찾아지는 추세"라며, "국화축제 개최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열)는 태풍이 통과한 최근 합일읍 소재 삼지원초소와 거점소독세척 초소인 용동면 이동과적점문소 차단방역 현장을 찾아 방역초소 근무자를 격려하고, "농장초소를 통과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과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확산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초소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폐지밀집사육지역이 소재한 우리 지역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차단방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현장 방역근무자들의 숨은 노고를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익산시는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등 동절기 특별방역이 시행됨에 따라 4일까지 옹포대교 등 2개소에 거점소독소독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전체 10개소에 거점 및 농장초소를 확대하여 위험요소 방역대책 추진을 강화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생활속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순항

문체부 공모사업 13개소 선정 후 추진 박차

익산시는 올해 생활 SOC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13개소 작은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를 끝마치고 공사업체 선정 등 새 단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은도서관 중 노후화 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13개소에 대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10억7천8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5억4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그동안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내년에 새롭게 단장한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역주민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안전한 귀갓길 공사 착수

이리여고·남창초교·이리서초교 방범시설물 설치

익산시가 여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이리여자고등학교, 남창초등학교, 이리서초등학교 주변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설계용역과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곳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골목, 담장에 CCTV 등의 방범시설물 설치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차도 분리 도색작업,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며 올 11월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안전한 귀갓길 공사 착수

이리여고·남창초교·이리서초교 방범시설물 설치

익산시가 여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이리여자고등학교, 남창초등학교, 이리서초등학교 주변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설계용역과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곳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골목, 담장에 CCTV 등의 방범시설물 설치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차도 분리 도색작업,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며 올 11월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김성도 도시재생과장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골목 등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환경개선으로 물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어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며 "학생과 여성, 지역주민 누구나에게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익산경찰서와 MOU를 체결하고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난해에는 원광여자고등학교와 부송초등학교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